

종합·해설

DJ 대통합 발언 사고 민주당내 '온도차'

통합과 중추위 '특정세력 배제론' 완화 촉구 오늘 DJ-박대표 면담따라 향후 당 진로 영향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협상이 좀처럼 가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2차 탈당이 가시화되면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소통합론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반면, '범여권 대통합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9일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대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범여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현역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26일 민주당 내 통합파인 김

효석 원내대표와 이상열, 신중식, 제일영 의원과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 장성원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광주에서 회동, 소통합보다는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반영하듯 28일 열린 민주당 중추위(중도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박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특정세력 배제론'을 보다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특정세력 배제론'으로 여러 통합과정에서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민주당이 보다 유연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범여권 대통합 주문 발언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박 대표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핵심 당직자들은 DJ의 발언을 열린우리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공세를 퍼고 있지만 함에 부치는 모습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DJ와의 선을 긋는 듯 발언까지 내놓고 있지만 당 내에서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김 전 대

통령과 박상천 대표의 면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을 만난 박 대표가 여권의 통합 문제와 관련, 폐쇄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천 대표 핵심 측근은 "소수 정당의 민주당은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의 일방적인 대통합 주장을 비판한 뒤 "박 대표를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만간 터닝포인트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 박 대표가 특정세력 배제론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경찰청장 '사퇴 거부 배수진' 성공할까

한화와 접촉여부 최대 변수로

비판 여론 비등 불구 사퇴압력 정면 돌파기로 檢 통화내역 추적... 정황 포착엔 소환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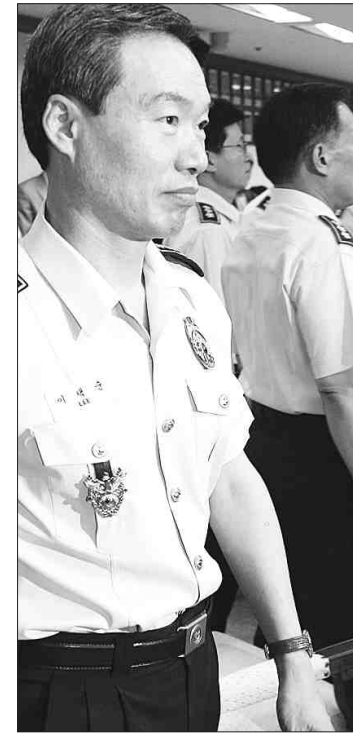
이택수 경찰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보복폭행 사건 수사 지연 등의 여파로 촉발된 퇴진 압력에 대해 '사퇴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청장은 28일 오전 소집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경찰이 일지단결 해야 할 때다"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내부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사퇴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 조직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청장은 경찰 총수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국 타개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나 얼마나 약발이 받을지는 미지수다. 보복폭행 사건 수사와 검찰 및 징계추진, 검찰수사 의뢰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이 청장의 태도를 질타하는 여론이 경찰조직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명하복이 최대 덕목인 경찰 내부에서 "이 청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실情的 비판마저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총수직을 유지하더라도 실추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이택수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권위 때문에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특히 이 청장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 한화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태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해야 하는 1차 관문은 검찰의 통화내역 조사다.

이 청장은 "본 건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들을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검찰의 통화내역 추적 조사에서 한화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본인의 자리 보존이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검찰의 소환조사가까지 받아야 하는 불운을 맞게 될 지도 모른다.

이 청장이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대화 내용이야 어떻든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이후 한화측 관계자를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청장이 스스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정치권, 언론 등에 의해 한화측과 접촉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무마 청탁유무와 무관하게 사태는 검증을 수 없이 악화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 청장의 이번 정면돌파 결심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YS "DJ 발악하고 있다" 독설

'범여권 대통합' 촉구 정면 비판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29일 '홍수 정치' 논란에 휘말린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도동 자택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홍 의원의 측근들이 전했다.

최근 DJ가 이례적으로 '사생결단'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범여권의 통합을 촉구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정권을 이제 빼앗기면,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하도 부정한 게 많아서 말야"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DJ에 대해 "자기가 발악한다고 발악하는 대로 되느냐"면서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말할 수록 더 안되게 돼 있는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홍 의원이 "DJ가 나서면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은 결집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과거하고는 다르다. 나도 이번에 (광주에) 내려가서 느낀 게 있다"며



당내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8일 서울 동직구 삼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방문, 큰 절을 하고 있다.

DJ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이전 시점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YS

는 이날 홍 의원에 "이번 경선에서 홍 의원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홍 의원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우리당 '2차 집단탈당' 가시권

통합파 - 탈당의원 회동 '창준위' 결성

열린우리당 통합파의 2차 집단탈당 움직임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통합파와 이미 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등 30여 명은 휴일인 지난 27일 저녁 회동을 갖고 대통합신당의 준비 단계로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우리당 소속인 의원들은 6월14일 이전이라도 소차 탈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 앞서 탈당해 중립지대에 있는 무소속 의원 및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에 모여서 창준위를 구성하고,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분류가 참여하는 '새천년민주당 방식'의 신설 합당을 통해 대통합의 틀을 완성한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창준위 단계에서는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우리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당 중진 김덕규 의원은 "대통합신당을 만들려면 가건물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지대 형성을 위한 준비위가 필요하다"며 "(탈당) 6월 14일 이후가 될지, 이전에라도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27일 회동한 그룹에 정동영 전 의장 계열의 박명광·김현미 의원과 김근태 전 의장 계열인 우원식·최규성 의원 등이 참석한 점도 주목을 끈다.

이와 함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시민사회세력이 중심이 돼서 내달 6월 10일경 사회원과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체격인 가칭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성향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기사실 통폐합 비판 확산

한, 국정홍보처 폐지 당론

우리,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정부의 공공기관 기사실 통폐합 조치에 맞선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사실 제공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된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위헌 판결이 난 신문법 일부 개정안 등 언론 관계법 4건도 당론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주자인 권영길 의원은 이날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실 통폐합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통폐합을 취소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전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기자실 통폐합은 선진화가 아닌 후퇴이며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검대기에 불과한 정보공

개방 등을 개정하지 않는 등 정치적 선결과제 없이 기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아울러 정보공개법을 전면개정해 공무원의 비밀주의, 취재회피 등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상호 의원은 "기자실 통폐합은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하지만 언론이 지나치게 언론탄압 안 양 물고 가는 것도 지면을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각각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매일공개설명회 :10시, 2시, 4시, 6시, 8시 www.epms.co.kr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생 PMS출신

= 2008학년도 총 1260명 모집 =

- ★ 의학전문대학원 :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포천중문의대
- ★ 치의학 전문대학원 :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제1회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 개설 강좌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한지능력시험 대비반



개강: 6월 1일

의.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대표입시브랜드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8088, 222-8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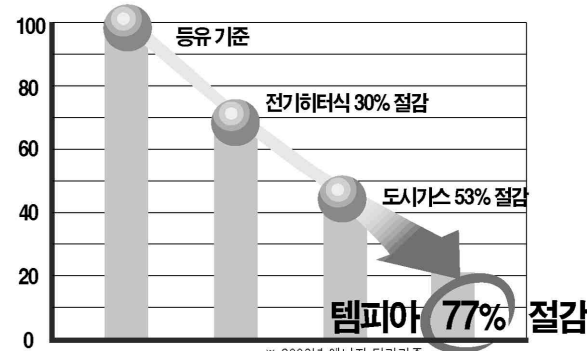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미국특허, 6단계 히트펌프 템피아 유지비는 1/3입니다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 ▶ 업계 최초 템피아 특별 리스도 가법계 보증금 10%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제품의 소유권 이전 및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 무이자 할부 판매 (12개월)
- ▶ 심상, 대우, 기온캐피탈 12, 24, 36개월 할부 가능

한정수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6만원~2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국전력에서 원격제어 냉·난방기를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일부품목 한정)

10평형~160평형까지
항공가습기 공기정정기

에어컨 특별 할인 판매 실시



공기과학 냉·난방에어컨
TEMPIA
템피아가 열었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062)955-4222, 080-701-7117

MBC 에어쿨 가부부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KBS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BS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

MBC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기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특허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냉·난방 에어컨 템피아가 만든 세계 최초 6단계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유지비 절감은 물론 시원한 냉방까지 책임지겠습니다.